

# 독하게 그리고 후회없이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김예미님

## 합격수기

### I. 머리말

안녕하세요. 31회 관세사 김예미 입니다. 글 솜씨는 부족하지만 한명의 수험생분 이라도 저의 합격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저의 수험기간에 30기 관세사님들의 합격 수기가 자극이 되기도 하고 잠깐의 휴식이 되기도 했듯이 저 또한 그렇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II. 자기소개 및 동기

나이는 24살,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입니다. 수험생활은 22살 가을(2012년 9월)부터 시작하여 약 2년정도 공부를 하였고, 그 중 1년은 학교를 다닌 상태였고, 나머지 1년은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경영학부 수업 중 무역관련 수업이 많아 '관세사' 라는 자격증은 익히 알고 있었고, 대학생 취업이 점점 힘들어 지던 시기이고 여자로서 결혼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시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격증 중 '관세사' 를 선택한 것은 암기를 잘하는 편이고, 그에 비해 수리에 약했기 때문에 '관세사' 가 저한테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III. 수험생활

#### 1. 1차 시험 준비

2012년 9월부터 관세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학교를 다니던 중이 없기 때문에 실강은 들을 수 없어 인강으로 관세법(이명호 관세사님)과 외계학(전00 외계사님), 내국소비세법(박00 관세사님)을 들었습니다. 또 1차 시험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1차과목 과 2차과목 중 가장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 HS(우00 관세사님)와 관세평가(김00 관세사님)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총 6과목을 1달에 약 2과목씩 3개월에 나눠서 들음) 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부터는 1차 시험 준비만 하였으며, 그 다음 학기도 학교를 다니면서 1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 2. 2차 시험 준비

1차 시험이 끝난 4월부터 학기가 끝난 여름 방학까지는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2차 기본강의(제갈현근 관세사님)와 무역실무 2차 기본강의(정00 관세사님)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제대로 된 2차 시험 공부를 시작했고, 그 뒤 1년을 휴학하여 2차 준비에만 집중 할 수 있었습니다.

① 7~8월 : 그 동안 인강으로 듣고 필기만 하여 이해가 부족했던 4과목 모두 다시 필기를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4과목 모두 공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한 과목당 약 2시간 정도씩 분량을 정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날 분량이나 기분에 따라 하루에 4과목을 다 보지 않고 1~2과목에 집중해서 볼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세법,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1회독씩 꼼꼼히 공부하여 암기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했습니다. 관세법은 기본이론 강의에 따라 2차에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였고, 무역실무는 그 당시 정재환 관세사님 교재가 얇은 편이었기 때문에 다외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HS의 경우 해설서를 제외한 주 규정, 호의 체계 등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아 무작정 노트에 책을 옮겨 적었습니다. 책을 그대로 적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HS라는 과목이 익숙해지고, 조금씩 공부하는 방향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관세평가는 프린트 몇 장이 교재였기 때문에 역시 다외독이 가능했고,

법령집을 중심으로 공부 했습니다.(협약은 이 당시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각 과목마다 전체적인 틀을 잡으며 공부하지는 못했고, 그날에 정해진 분량을 공부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일정도 전에 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 시기에는 잊어 버리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 ② 9-10월 : 7-8월에 모든 과목을 1회독 이상하면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인강을 듣고(휴학을 한 시기라 실강으로 들어보려 했으나 체력적인 문제로 인강으로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무역 실무와 관세평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기본 교재로는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에 박병호 관세사님 기본이론과 정00 관세사님 기본이론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HS는 이해를 돕기위해 우연경 관세사님의 해설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스터디의 경우 각 과목마다 분량을 정해놓고 암기 하는 식으로 매주 한 번씩 시험을 봤고, 주로 공부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거나 공부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7-8월에 혼자 공부하면서 공부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 늘 옳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 답답했었는데 스터디는 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대외·외환 강의(정00 관세사님)를 들었는데, 더 늦지 않고 이 시기에 강의라도 한번 듣고 정리 하는게 모의고사 때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고, 그 이후에 부담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내용을 보충하고, 모든 과목 다 회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③ 11-12월: 1월부터 시작하는 모의고사에 심적 부담감이 왔던 시기이기도 하고, 7-10월 동안 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공부가 질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과목을 하루에 모두 보지 못하는 때가 많았고 기분에 따라 공부하고 싶은 과목만 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과목 2차 답안지에 적을 부분을 암기하기 시작했고, 관세법 마스터 강의(제갈현근 관세사님)와 관세평가 문제풀이(정00 관세사님)를 들으면서, 이 2과목 뿐만 아니라 4과목 모두 목차 노트를 만들었습니다.(목차 노트는 나중에 많이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목차를 만드는 연습이나, 암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하면서 10점짜리 문제를 만들어 답안 써보는 연습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하여 글씨체도 엉망이었고 목차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점을 알고 보완 할 시간이 있어서

모의고사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부할 때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하기 보다는 실제 답안지에 작성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암기 할 수 있게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④ 1월~7월: FTA관세무역연구원에서 1월에서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맞춰 시험 전까지 공부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범위가 1/8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꼼꼼히 외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보지 않은 부분은 모의고사 범위가 넓어 질 수록 더더욱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모든 부분을 봐두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을 처음에 정리해 놓은 덕에 나중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일주일 계획이 자동적으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매주 전주의 등수가 나오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주 한주 자극을 받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볼수록 모든 과목을 1회독 하는 시간이 빨라지게 되었고, 모의고사 답안지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면서 이해도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암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IV. 과목별 공부방법

### 1. 관세법(63점)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기본이론 강의와 마스터강의를 듣고, 교재와 마스터강의에서 주시는 프린트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관세법은 법 내용과 각 규정의 정의, 배경, 한계점 등 일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강의를 들을 때 강사님이 말해주는 책에 없는 부분을 잘 적어 놓았습니다. 또한 각호(예: 특별 납세의무자 - 1. 미적재 선(기)용품, 2. 소비·사용한 물품 등)는 암기를 하기 전에도 꼼꼼히 보아서 이해를 도울 수 있었고, 암기 할 때에도 정확히 외우는 편이어서 답안을 작성할 때 헛갈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늘 책에 나와 있는 목차 순서대로 공부하고 암기해서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연스럽게 관련된 책 내용을 모두 기억 했던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 2. HS(68.5점)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주 규정과 호의체계를 모두 외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과목에 비해 논리에 따라 암기할 수 없어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시작하고 나서는 매일 아침 3시간을 HS공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모의고사도 실제 시험도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꾸준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가 전 범위인 4월부터는 몇 류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1회독씩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암기식을 거의 만들지 않았는데, 호의체계의 경우 저만의 구조나 분류를 만들어서 여러번 쓰고 외우고를 반복했고, 관련이 되는 부나 주끼리 함께 공부하며 암기 하였습니다. 머리로만 외우지 않고 쓰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정확히 공부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해설서를 따로 시간을 내서 보기보다는 책에다 추가적으로 모두 적고 그 부나 주를 공부할때마다 같이 공부하여 실제 답안지에 해설서 내용 또한 서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3. 관세평가(52.5점)

관세평가는 분량자체는 다른 4과목에 비해 가장 적어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1`2`3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끝나면 관세평가 답안을 가장 먼저 확인하여 틀린 판단을 체크하고, 협정 내용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관세평가 모의고사는 여러 번 풀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지난 뒤 다시 풀게 되면 처음과 똑같이 틀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옳은 판단을 보고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1평가방법에서 6평가방법의 법, 시행령, 고시, 협정을 모아서 관련된 것끼리 모두 묶어서 (예: '법정가산요소' 라면 법정가산요소와 관련된 법, 시행령, 고시, 협정, 추가적인 이슈등을 한번에 정리)프린트하여 무엇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법, 시행령, 고시, 협정의 관련 내용이 모두 기억날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또 모의고사 답안지도 각 관련 주제마다 모아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 4. 무역실무(63.5)

무역실무는 처음에 정00 관세사님 강의를 듣고 전반적인 흐름을 알게 되고, 박병호 관세사님 강의로 구체적인 부분이나 새로운 내용들을 보충하였습니다. 처음 박병호 관세사님의 교재를 산 뒤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 다 외우려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역실무는 글자 그대로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공부하면 답안을 작성 할 수 있기 때문에, 1회독 때 꼼꼼히 본 이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각 주제별 목차를 만들어서 그 목차만 보면 관련 내용이 기억날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둔 목차만 보고 한번 떠올리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은 답안지의 추가적인 설명을 기존 목차에 넣어 수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5.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 거래법, 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환급특례법은 강의를 듣고 1회독 한 후(모두 10월 달 전에 수강), 12월달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1월 모의고사를 시작하면서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매일 30분 정도 보는 식으로 공부 하였습니다. 앞의 과목처럼 이해를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각 파트별 목차를 세우고 그 목차대로 공부하며 암기하였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었지만, 공부시간이 너무 짧아 모의고사에서 아예 대외외환문제나 환급특례법 문제를 못 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로는 집에 가서 자기전 1시간에 틈틈이 더 봤었습니다.

### V. 그 밖의 하고 싶은 말

#### 1. 공부시간과 휴식시간

저는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무엇에 집중하는 일을 원래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험기간이 더더욱 길게 느껴지고, 공부하는 자체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서는 매주 수요일부터 도서관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목요일, 금요일을 그냥 도서관에서 앉아있거나 집에서 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다보니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안으로 공부가 안 된다는 느낌이 오자마자 딱 3시간만 공부하고 집에 가거나 놀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시간을 열심히 하다보면 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도 있고, 물론 계획대로 놀 때도 있었습니다. 또 모의고사가 시작된 후에는 정말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보는 토요일 오후는 아무것도 안하고 놀았습니다. (나중에는 모의고사를 본 날은 바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 오전으로 휴식시간이 바뀌긴 했습니다)

저는 저처럼 몇 일만에 공부가 질리는 분들은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일주일에 만나질 정도는 계획을 하고 휴식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2. 스터디

저와 같은 유예생 5명이서 스터디를 하였는데, 그 중에 4명이 올해 합격을 하였습니다. 스터디를 시작하고는 일주일에 거의 한번 씩 만났고 대부분 준비해 온 문제를 풀거나 공부방법이나 질문, 모의고사 답안지 같이 보기 등을 2~3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스터디가 많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빼고는 각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심적으로 의지를 하는 것 외에는 공부자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터디끼리 자주 만나서 놀지 마시고 공부는 각자 하시는게 나중에 같이 합격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 3. 체력관리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약해서 공부할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도 체력이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하고 의욕이 없어지는데 그 전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부터 비타민과 영양제 고박 섭취하시고, 밥을 세끼 모두 정확한 시간에 챙겨 먹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밤마다 자기 전에 요가를 해서 공부하면서 뭉친 근육들을 풀었는데, 피곤이 쌓이지 않게 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4. 글씨체와 필기구

답안지를 작성할 때 글씨체가 예쁘고 안예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글씨를 흘려서 쓰는 버릇이 있어, 글씨체를 모의고사를 치면서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고 시험 당일 가서도 자연스럽게 의식적으로 글씨체에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시험당일 바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구가 생각보다 그 글씨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첫 모의고사부터 여러 가지 필기구로 시험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5. 연애

합격수기에 이 얘기를 쓸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연애를 하시는 수험생께 희망을 드리고자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수험기간 동안 내내 남자친구와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계사를 준비했고, 저는 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서로 의지도 많이 했고, 공부시간이나 모의고사 성적 같은 면에서 자극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시간을 뺏길 때도 있었지만 혼자보다는 둘이여서 끝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조건 독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잘 이용한다면 어떤 스터디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남자친구는 회계사 동차로 합격 하셨습니다^^)

### VI. 맺음말

수험생활에 저를 옆에서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너는 당연히 합격 할 꺼라고 걱정 말라고 늘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부담이 되었고, 고민이 있어도 주위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수험생인 이 기간이 인생에 몇 번 안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독하게 최선을 다하셔서 꼭 후회 없는 수험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기간 동안 늘 옆에서 도와줬던 부모님과 예의 오빠에게 감사합니다.

31기 관세사 김혜미 드림

